

## 운영 · 해운 · 항공 · 유통분과 위원 위촉

협회 및 복합운송업계의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회 분과위원이 지난달 7일 개최된 2000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위촉됐다.

협회내 분야별 제도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 심의를 위한 기구로서 운영 · 해운 · 항공 · 유통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 위원장으로 운영 윤원기 부회장, 해운 조희열 부회장, 항공 김영오 부회장 및 유통 최건식 부회장이 이를 맡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전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개정하였고, 한편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는 협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 연수교육, 각종 홍보관련 업무 등은 운영분과위원회에서 다루며,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과 관련된 해운분과위원회, 항공운송과 관련된 항공분과위원회, 회원사간 분쟁의 중재 조정 및 영업질서 확립 등에 관한 업무는 유통분과위원회이다.

### 분과위원 현황

위원회 구분	운영분과위원회	해운분과위원회	항공분과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
위원장	윤원기(대동종합물류)	조희열(삼조해운항공)	김영오(태화국제운송)	최건식(신창기업)
위원	나동현(아트란틱해운) 최영훈(대우해상) 배창섭(범아해운) 윤석빈(ATE유니버설) 이중열(우주국제운송)  해운분과위원 2명 항공분과위원 2명	김유연(범진상운) 정계성(가아쉬핑) 장재근(대성해운) 강택구(대일해운항공) 이도희(모락스) 신병창(범양해운) 이기국(선진복운창고) 차미성(영탑) 남기영(천지해운) 권무환(코메트해운) 박종만(티오피해운항공)	이우종(백스글로벌) 양천구(남성해운항공) 김인환(동보해운항공) 노동현(동아항공화물) 윤석우(두성해운항공) 도한수(성일해운항공) 김영진(ABX해영Korea) 신규승(엑스트랜스) 김영기(우진항공혼재) 김지일(EI코리아) 송정섭(해외항공화물)	김용길(뉴월드쉬핑) 곽준영(다우해상) 성낙청(동남익스프레스) 하은실(서울해운) 김성수(탑스타해운항공)  해운분과위원 2명 항공분과위원 2명

## 협회 교육훈련비 지원금 늘어나

### 직능개발사업지원금규정 개정 따라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우리 협회의 연수교육과정 수료시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 3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최소 7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협회의 연수교육은 단과반으로 △해상포워딩, △항공포워딩, △항공위험품 취급, △무역실무 등 5개 과정으로서 2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기초반은 △해상포워딩(60시간), △항공포워딩(56시간) 등 2개 과정이며, 중급반교육으로 △복합운송실무(72시간) 과정 등 총 7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모든 과정은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향상훈련)으로 지정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여야만 하며, 수료자적은 지정교육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수료후 제반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안정세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향

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금년들어 단과반 과정인 해상포워딩교육(1. 17~21)과 항공포워딩교육(2.7~11)을 각각 54명에 대해 실시한데 이어 항공위험품 취급교육(2. 21~25) 14명, 기초반 과정으로 54명에 대해 해상포워딩교육(3.6~24)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교육으로 컴퓨터과정인 사무자동화와 인터넷교육(2. 14~18)을 실시한 바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현황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훈련비	지원금액		비고
			우선지원	대규모지원	
단과반	해상포워딩	20	60,000	49,010	교육을 수료(80%이상 출석)하여야만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를 지원요청할 수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종업원수 150인 미만임.
	항공포워딩	20	60,000	49,010	
	항공위험품	20	80,000	64,000	
	무역실무	20	60,000	49,010	
기초반	해상포워딩	60	180,000	147,000	
	항공포워딩	56	170,000	138,830	
중급반	복합운송실무	72	222,000	184,680	164,160

## 인천공항터미널 사무실부족 해소 전망

복운창고 1천평등 약 2천평 추가 확보기로

오는 2001년에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의 사무실 부족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에 임대용 A, B, C 운송 대리점등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중인 사무실은 230실 규모의 1만 8,787㎡(건축 연면적 2만 2,192㎡)에 불과하나 임대수요는 463실 2만8,643㎡

에 이르러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반면 임대수요에는 과수요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김포상주업체가 사용하는 면적의 1.5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 3,000평(9,856㎡)의 사무실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협회에서는 사무실 추가 건축을 건설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건의

한 결과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약 2,000평을 추가 증축하기로 하여 사무실 부족난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8일 건교부 신공항시설과에서 개최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무실 확보방안'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일부 임대수요의 과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000평은 추가로 건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여 인천공항복운창고(주)에서 1,000평을 추가 건설하고, 나머지 1,000평은 A(대한항공), B(아시아나항공개발), C(외항사터미널) 사업시행자들이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부족사무실 2,000평중 1,000평은 현재 단층으로 건설중인 인천복운창고에 2층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활용하는 한편 B사업자는 당초 자사의 식당과 휴게실 등으로 계획했던 공간중 370평을 확보해 복운업체들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사업자는 화물터미널내 항공사가 사용할 사무실중 일부를 복운업체 등의 임대용으로 약 110

평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C사업자도 약 230평의 사무실을 추가 확충기로 하는 등 약 1,710평의 증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추가확보 2,000평 이외에 또다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천공사의 가설 사무실을 운송대리점 사무실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추가확보 2,000평 이외에 또다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천공사의 가설사무실을 운송대리점 사무실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사무실 확보방안은 우리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운업체의 경우 262개사 약 4,900평에 이르며, 보세운송업체의 경우 35개사 730평 등 총 463개사가 8,700평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건설중인 사무실은 230실 5,700평 정도에 불과하여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돼 이의 추가 건축을 건교부 및 인천공항공사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 사무실 시설공급 현황

구 분	면적(㎡)		사업시행자
	건축 연면적	사무실 면적	
운 송 대리점	A	7,780	68실(20평 47실 24평 21실)
	B	7,966	99실(13평 75실 17평 24실)
	C	6,459	63실(13평 41실 기타 22실)
계	22,192	18,787	230실

◇ 사무실 임대수요 현황

구 분	대리점	운송업체	관세사	기 타	합 계	
김포공항 상주업체	업체수(실)	167	32	89	2	290
	면 적(㎡)	9,774	2,234	4,533	220	16,761
비 상주 업체	업체수(실)	95	3	75	-	173
	면 적(㎡)	6,370	174	5,338	-	11,882
계	업체수(실)	262	35	164	2	463
	면 적(㎡)	16,144	2,408	9,871	220	28,643

## 제27차 FAPAA 총회 경주서 개최

6월 11일부터 4일간 현대호텔에서

제27차 FAPAA(Federation of Asia-Pacific

Aircargo Associations) 총회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26차 FAPAA총회에서 27차 총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여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오는 6월 11일(일) 등록을 시작으로 12일, 13일 양일간 회의를 거쳐 13일 친선골프대회 또는 관광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FAPAA총회의 우리나라 개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레이트 포워드 협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

함과 아울러 대외신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FAPAA(아·태지역항공화물협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필리핀 등이 주축이 되어 아·태지역 항공화물운송업계의 상호 이익증진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지난 1985년 11월 25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총16개국 협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다.

## 국내 복합운송업체 화주단체(S/A) 결성

40여사 참여한 KASA 내달 출범예정

해상운송인과의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S/C) 체결에 따른 보다 유리한 운임을 화주에게 제공키 위해 국내 복합운송업체들간의 Shipper's Association(S/A : 화주단체)가 결성돼 오는 5월부터 공식 출범한다.

이는 미주항로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국내 40여개의 복합운송업체들은 미국 해운개혁법(1990 U.S. Ocean Shipping Reform Act)이 규정에 의거한 S/A를 구성, 선박회사들과 우대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선사로부터 유리한 요율을 제공받아 수출입화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 3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미 해운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무선박운송인(NVOCC)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인 Bond 및 Tariff 대행업체와 등록절차 및 비용에 관해 협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USD3,700 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미 현지 변호사인 법무법인 S.K. Ross & Assoc.와 용역계약을 체결, S/A구성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와 사후관리의 준비도 병행해 왔다.

현재 S/A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38개사로 3차례의 참여사 전체회의와 10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S/A명칭을 Korea- America Shippers' Association(KASA)으로 정하고 KASA 운영규정 및 KASA와 참여사간 계약서 내용을 확정된 바 있으며, 현행 KIFFA 조직으로 FMC에 등록할 경우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KASA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 KASA 대표로 우리 협회 김 창묵 전무이사를 선임했다.

KASA 참여사의 총 물량은 연간 16,000TEU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4월중에 대상선사 및 정확한 S/C 참여물량이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KASA는 4개의 국적·외국적선사와 접촉중이며, 미주항로의 활성화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앞으로 아시아항로 및 구로항로도 이러한 S/A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S/A는 미국 해운개혁법(OSRA) 개정, 발효이후 국내 및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된다.

## 사이버 운송체제 도입 전망



국내 복합운송업계에도 인터넷을 통한 운송계약 체결시스템인 전자상거래(e-commerce)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사이버 운송체제의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회원 약 110명을 대상으로 스웨덴 Cargo Now사의 주관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운송체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이나 제3국간 운송화물에 대해 Cargo Now사에 가입한 복합운송업체가 운임 및 부대서비스를 제시하여 화주가 제시한 운송조건과 부합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Cargo Now사에는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19개국, 아시아 9개국, 북미(캐나다) 1개국, 대양주 2개국,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등 모두 32개 국가의 복합운송업체, 트럭업체 및 항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TSP(Transport Service Providers)와 2,100여 화주가 TSU(Transport Service Users)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argo Now사의 사이버운송체제를 이용한 지난해의 운송실적은 약 100만톤이며, 일일 거래건수도 약 7,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의 수출입화물에만 국한한영업에서 탈피하여 제3국간 화물의 운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스웨덴 대사관에서 한국내 운영업자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50% 인하된 사용료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내 ISP는 4, 5월 2개월간 동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신청은 CargoNow webpage (www.cargonow.com)으로 하면 된다.

## 수입항공화물 인도시 은행 D/O 확인예정

김포세관 장치장 오는 17일부터 L/C건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수입항공화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김포세관 관할 보세장치장 설영주들은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항공운송장(AWB) 사본 및 복합운송업체의 전산 D/O외에 해당은행의 인도승낙서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협회에 알려왔다.

최근 김포세관 관할 7개 보세장치장 설영주들은 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 대금변제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자 이의 보완책으로 수입항공화물 인도시 4월

17일부터는 반드시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인도승낙서(D/O)를 제출하여야만 화물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악덕화주에 의해 화물이 무단 반출되는 경우 은행은 수입대금의 변제를 위해 화물을 운송한 복합업체나 화물을 인도한 창고설영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판결에서도 은행측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은행이 발급한

## KIFFA NEWS (협회소식)

D/O 확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운송업체와 창고설영주간의 D/O를 전송한 경우 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의 보완책으로 은행 D/O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D/O 전산제도에는 반드시 은행이 참여하여 화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수입화주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이 수입항공화물의 D/O 전산제도에 빠른시일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은행의 참여가 지연될수록 수입화주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며, 은행 D/O 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입화주 등 물류관계자들의 협조가 요망된다.

### 김포세관 관할 장치장의 수입화물인도제도

- ◇ L/C 화물 인도시
  - AWB 사본 + 복운업체의 전산 D/O + 은행의 인도승낙서(사본 가능)
- ◇ 비 L/C 화물 인도시
  - AWB 사본 + 복운업체의 전산 D/O
- 시행일 : 2000. 4. 17

## ‘산모임 포워드’ 선각산으로 4월 산행

복합운송업체 종사자들의 등산동호회인 ‘산모임 포워드’(회장 김성수 : 탑스타해운항공 대표)는 오는 16일(일) 전북 진안군에 소재한 선각산으로 산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19일 강원도 대관령의 선자령으로 산행을 가진 ‘산모임 포워드’는 지난 1987년 7월 제1회 산행을 시작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임 포워드 2000년도 산행계획표

산 행 일 자	행 선 지	위 치
2000. 4. 16	선각산	전북 진안군
5. 20~21	지리산 천왕봉	경상·전라도
6. 17~18	태백산 철쭉제	강원도 태백시
7. 15~17	승봉도	경기도 용진군
8. 19~20	동강레프팅	강원도 영월군
9. 17	도일봉, 중원산	경기도 양평군
10. 21~22	설악산 대청봉	강원도 속초시
11. 19	마니산	경기도 강화군
12. 17	유명산 통돼지구이	경기도 가평군